

社說

2천년대 준비하는 대학문화의 산실 —수원캠퍼스 학생회관입주를 맞이하며

대학생활의 중심지이며 대학문화창달의 요람이 되는 학생회관의 준공은 대학역사에 한 획을 그은 뜻깊은 사건이다.

수원캠퍼스 학생회관이 10월 12일 준공을 맞아 입주식을 갖는다. 11년의 역사속에 끊임없이 요청되어 오던 절실한 꿈이었던 학생회관 건립은 이제 여러가지 편의 시설과 함께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79년 본교 형태로, 입학정원 4백50으로 시작했던 수원캠퍼스는 현재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 규모로서 6개 단과대학에 34개 학과, 1개 대학원을 갖고 있으며, 입학정원이 서울캠퍼스보다 약간 많이 책정되어 있다. 8천여명이 다니는 대캠퍼스로 발전한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어 오던 학생회관의 준공은 오히려 뜻밖의 감이 있다.

다행히도 각 단과대학 건물이나 자리를 잡은 시점에서 최신시설의 학생회관이 준공을 맞게 된 것은 경희의 또다른 도약을 다짐하는 것이 된다.

2년여의 공사기간, 지하1층 지상7층의 대형건물, 본교사상 최초의 엘리베이터 설치등으로 최신편의시설을 감안하여 지은 이 건물은 수원캠퍼스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 공간, 휴식공간이 없어 고생하던 학생들은 남다른 감회와 의욕을 갖고 이 건물을 이용하리라 본다.

대학생활의 중심지이며, 현재를 상속시키고, 미래를 계획하는 참다운 대학문화의 산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의 유용성, 견실성, 청결성과 함께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만 한다. 이것은 학교단위의 협조 아래 학생들 스스로의 창조적인 노력과 협동, 인내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생회와 학교의 실무부서, 지역역할의 교수들로 구성되는 상설운영자문기구들이 발족되어 수시로 운영을 연구하고 경우에 따라 마찰을 중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는 합리적인 공간 배치와 창의력 있는 건물의 활용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캠퍼스와 여타 대학의 기존의 학생회관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연구하고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의 새 공간 영원한 기념관 경희관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스포츠 공화국의 허와 실 —방송 편성의 다양화를 요구한다

중국대륙으로부터 불어오는 아시안게임 열기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개막 일주일 전부터 양 방송사는 북경방송체제로 돌입했고, 개막 2일이 지난 현재는 TV만 켜면 어느 채널이든, 어느 시간대건간에 그 열기를 흡수시킬 수 있는 실정이다. 86, 88 양대 스포츠행사로 전라한 스포츠 붐 조성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스포츠가 지닌 집단적 신명이나 놀이를 잊은지 오래고 정치목적으로서의 스포츠로 전락한 현실이다. 이러한 광적 스포츠 열기를 더욱 조장시키는 충실한 도구가 '돈' 최상주의인 상업주의와 결합한 공영방송이라는 매체다.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KBS·MBC가 경쟁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 지나치게 홍보하고 있다. 또 모두 1백52명으로 구성된 합동방송단에서 제작하는 경기중계방송을 다음달 7일까지 하루종일 생중계 하고 있다. 특히 최고 황금시간에 배정된 밤9시 뉴스는 이에 북경에서 현지중계를 하고 있다.

이는 일본 NHK의 경우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만 주요경기 중계를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방송이 얼마나 범상치 않은지를 알 수 있다. 한편 낮동안의 공중중계 방송에서 두 방송사가 타이틀, 로고, 광고만이 다를 뿐이요 같은 화면을 방송하는 것은 광고로 수입

만을 노려 애써 원화(元貨)를 남비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우리선수들이 경기에서 출전해 다른 나라 선수보다 뛰어나고 매달을 따면 더욱 좋다. 또한 아시안게임 못지않게 중점을 두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정상화라든가 남북한 공동응원단 구성등의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국민의식이 어떤 목적 때문에 조사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 진정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찾으며 쉼부리고, 열매가 되는 농군이 UR협상때문에 고뇌하는 모습은 저버릴때, 추석을 맞아 총리회담때 제외된 고향방문에 한가닥의 희망을 걸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주름진 얼굴은 저버린 채 아시아인의 축제와 평화란 명목으로 TV채널을 선택한 여자들이 독점에 버리고 스포츠로 일색해 버린다면 이는 분명 우리의 문화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국민모두가 바라고 있다. 우리를 대표해 나간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기백을 만주대륙을 건너 북한까지 전해줄기를. 그러나 국민모두가 될 수 있는 대중스포츠가 무시된 채 대부분의 국민은 관람자에 불과하고 소수의 선수에 의해, 그리고 매스컴에 의해서 조장되는 스포츠는 지양되어야 한다.

불합리한 계획으로 구멍난 국고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I. 머리말

정부는 91년 예산을 일반회계기준으로 90년보다 19.8%늘어난 27조 1천8백25억 원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부처 신설되는 지방양여세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조 2천7백91억 원에 이르러 일반회계예산은 28.6%나 늘어나 80년대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예산은 팽창되는데 비해 예산을 왜 늘려야 하고 늘어난 예산이 과연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는 지에는 의문이 있다.

제방목이 터지고 유수지의 펄포가 고장나서 물난리를 겪게 되고, 또 상수도 수질문제로 생수수가 급증하는 가 하면 주택난으로 편의 발판과 잘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30%나 되는 국방비를 부담함으로써 나라살림이 휘청거리는 데 주한미군의 주둔비뿐 아니라 페르시아만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비까지 내용으로 미국재정권이 손을 벌리는 판국이다. 그리고 정부는 항상 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세계 개편시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불로소득세는 엄청난 소득을 탈세하고 있고 세금은 민중들의 땀으로 뿜어지고 있다.

II. 국가예산의 구조

흔히들 국가예산을 이야기할 때 일반회계기준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이것은 국가예산이 대단히 복잡하고 광범위하여 가장 대표적인 예산만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국가예산을 일반회계로만 제약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눈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 통상 공공부문의 하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등)과 정부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예산과 기금으로,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일반회계기준이란 중앙정부의 예산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 국가예산은 정부공기업의 제외한다하더라도 일반회계예산만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 지방정부예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보통 일반정부라 한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각 회계와 기금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자금의 흐름에서만이 아니라 정부기구가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금의 흐름이라는 면에서 조세수입이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자금을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용 또는 출연하여 또다른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회계간의 관계는 특히 80년대 들어 기금의 급팽창과 87년 이후의 세계금융을 이용한 추가경정예산의 급증, 증권시장 활성화에 따른 공공기업의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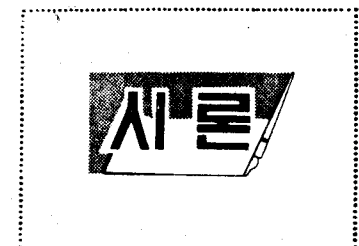
자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정부 각 부처는 매우 적절하게 이들 자금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어느 부처에서 일반

회계예산은 100억원 국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했는데 50억원만이 통과된다면 이들은 손쉽게 이 자금을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해 조달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버리면 된다.

더구나 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매워주면 그만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전출금에 이렇듯 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들 자금을 민주적으로 규제할 틀이 부재하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비민주적인 것이다.

III. 국가예산팽창의 문제점

국가예산의 구조가 통상적으로 좁은 의미의 일반회계만을 중심으로 사고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국가예산의 올바른 사용과 감독이라는 기능이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민간당정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91년 예산팽창조치적 정견이나 개혁이나 하면서 예산팽창론을 옹호하고 있다. 이항에서 우리는 국가예산을 국가기구의 전체예산으로 보고



재정규모뿐 아니라 지출내용 문제 심각해 국민복지 개선과 생산성 증대 위한 재정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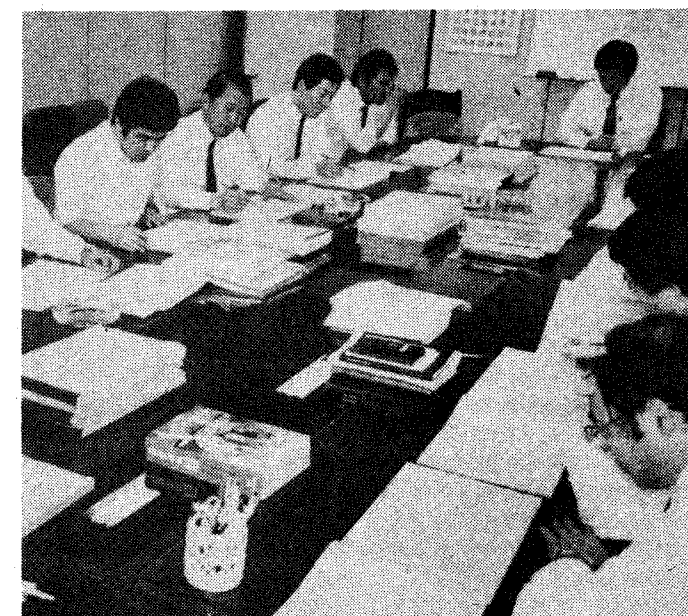
(공기업부채는 제외) 이러한 국가예산 팽창과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80년대 급격한 예산 팽창이다. 특히 87년 이후 변화적인 예산증가와 90년 민간 출몰이후 폭발하고 있는 국가예산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예산의 팽창은 일반회계예산에서도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국가예산이면서도 국회의원에서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여겨지는 특별회계나 추경, 그리고 국회의원을 받지 않는 기금을 통해 증가되어왔다.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은 80년대를 통해 급팽창한 영역이며, 기금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조차 받지 않고 정부부처에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재정규모가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국민총생산대비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변화적인 형태로 증가되어온 것이고 단지 일반회계만이 국회에서 팽창이 힘들었던 것이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비는 일반회계예산 규모로 팽창하였다.)

심지어 일반회계도 변화적으로 증가시켜 왔는데 추가경정예산의 불법적

편성이 그것이다. 6공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반회계예산이 국회에서 정부의도대로 통과되기가 어렵게 되자 엄청난 추가경정예산을 산정해 예산을 분산확대시켜왔다. 추경 규모만 우선 보면 87년 이전까지 몇 천억원 이하이던 것이 88년에는 9천6백50억원, 89년 2조 8천1백90억원, 90년 1차추경만 1조 9천6백10억원에 이르렀고 있다. 그 내용이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예산심의가 일반회계에 비해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일반회계예산이 아니라 각중사업비, 기금출연금, 정보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하여 왔다. 추



△ 각 정부부처간의 예산심의를 조정하는 예산심의회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팽창의 내용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조순 부총리시절만 하더라도 복지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던 예산은 복지지출을 너무 많이 했고, 자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한국의 복지지원지출이 대단히 적다는 것은 어느 통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아이다. 복지지출이 후진국이라는 점이 비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대재정의 내역이 드러나야 되겠지만 팽창예산이 91년 총선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1년 예산팽창은 선거를 대비한 팽창예산이고 이것은 재정부담과 국가부담을 동시에 국민에게 안기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설사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산이 꼭 더 쓰여야 할 곳이 있다면 우선 재정제도와 운영의 혁신부터 기해야 한다. 재정지출에서 억압적, 통제적 비용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특별회계와 아무 구별이 없는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국회의원을 받아야 한다. 과도한 세금부담을 하는 저소득층, 노동자, 청년층의 세금을 감면하고 불로소득세종의 세부담을 늘려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후에 국민을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할 곳이었다면 국민을 설득해서 늘려야 정당한 것이다.

△ 예산심의회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1년 예산팽창은 선거를 대비한 팽창예산이고 이것은 재정부담과 국가부담을 동시에 국민에게 안기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설사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산이 꼭 더 쓰여야 할 곳이 있다면 우선 재정제도와 운영의 혁신부터 기해야 한다. 재정지출에서 억압적, 통제적 비용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특별회계와 아무 구별이 없는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국회의원을 받아야 한다. 과도한 세금부담을 하는 저소득층, 노동자, 청년층의 세금을 감면하고 불로소득세종의 세부담을 늘려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후에 국민을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할 곳이었다면 국민을 설득해서 늘려야 정당한 것이다.

이상영
(서울대대학원 경제학)



POSCO

新入社員募集

浦項製鐵은 다음世代的幸福과 다음世紀의繁榮을約束하는企業입니다.
10년앞을 내다보는智慧로 21世紀의 당신의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浦項製鐵의無限한可能性과 함께成長할人材를 널리 찾습니다.

1. 募集分野 및 應試資格

募集分野	人員	應試資格
技術系 機械工學, 電氣工學, 電子工學, 金屬工學, 化學工學	250名	• '64. 1. 1 이후 출생자 • 단, 碩士는 '62. 1. 1 이후 출생자 • 4년제 正規大學(院) 募集分野 該當學科 또는 關聯學科 卒業者 및 '91. 2월 卒業豫定者 • 兵役學 또는 免除者 ※ 語學專攻者는 事務系分野 應試可能
事務系 經營學, 經濟學, 貿易學, 法學, 行政學	150名	

2. 銓衡方法

- 1次銓衡: 筆記試驗 (英語, 專攻)
- 2次銓衡: 面接, 身體檢査 (1次合格者에 限함)

3. 1次銓衡(筆記試驗)日時 및 場所

- 日時: '90. 11. 4(日), 午前 9時
- 場所: 弘益大學校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소재)

4. 提出書類

- 入社志願書 (當社 所定樣式).....1部

5. 志願書交付 및 接受處

交付處	接受處
• 各大學 學生處 또는 就業輔導室 • 當社 서울事務所: 中구 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서울시청 좌측 소재) • 포항: 本社 1層 案内室 • 光陽: 光陽製鐵所	(790-785)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浦項綜合製鐵(株) 人力管理部 人力課

6. 接受期間 및 接受方法

- 期間: '90. 10. 8(月) ~ 10. 24(水)
- 方法: 郵便接受

7. 其他事項

- 書類提出는 郵便으로 하되 마감일 到着分에 限함
- 國家報勳對象者로서 證明書 提出者는 關係法令에 의거 優待함
- 其他 詳細한 事項은 接受處로 問議바람
(電話: 0562-70-0693 ~ 0696)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